

中風의 藥針療法

김 수 범

우리한의원

I. 緒 論

韓醫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 중에는 洋醫學보다 우의를 지킬 수 있는 분야는 內科的인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中風과 관련된 질환은 가장 자신할 만한 분야이다. 그렇지만 中風의 분야에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다보면 한계를 느끼는 때도 적지 않다. 즉 高血壓, 糖尿病 등의 成人病, 不眠症, 癩疾症, 頭痛 등의 精神神經科적 질환, 전신에 나타나는 만성적, 급성적 통증, 인사불성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가지의 병만 왔을 때에는 한의학적인 노력을 해 볼 수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거나 먹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약에 의한 치료는 힘들고 침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아주 만성화가 된 경우에도 침과 약만을 이

용하여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약침요법을 같이 병행하여 한약, 침 등의 다른 치료와 병행한다면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藥針療法은 한의학의 埋線요법, 藥線요법, 穴位埋藏요법 등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방법으로 針과 韓藥의 두가지 효과를 같이 내는 방법이며 機轉的으로는 免疫作用을 이용한 치료방법이다. 현재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는 經絡藥針療法, 八綱藥針療法, 蜂藥針療法, 中國의 藥針療法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중풍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여 中風의 전조증, 중풍의 응급시, 초 중기, 후유증기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 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약침요법을 다양하게 섞어서 활용을 해 볼 수 있다.

II. 本 論

1. 藥針療法の 種類

藥鍼요법이란 우리 몸 안의 免疫작용을 일으켜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써 크게 經絡藥針, 八剛藥針, 蜂藥針 등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中國에서도 한약제를 이용한 약침이 있다.

1) 經絡藥針療法

經絡약침은 몸 안의 經絡점(경락)을 찾아서 그 부위에 潤과 氣의 과부족을 조절하여 경락을 잘 소통하게 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모든 병이 오게되면 반드시 그것과 관계된 경락이 발생되며 이 경락을 치료해 줌으로써 병을 치료한다는 이론이다. 경락은 몸의 어느 곳에서나 생긴다고보며 12 경락 외에도 많이 있다고 본다.

經絡藥針은 經絡조직, 潤, 氣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설명되어 진다. 경락조직은 면역조직이며 저항조직이기 때문에 면역과 저항력이 강한 체질이나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으나 潤이 적고 경락조직이 발달이 지나치면 潤이 고갈되어 명이 짧아진다고 하였다.

潤이란 경락조직에서 기를 일으키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생명소이다. 潤이 많으면 건강하고 潤이 오래 간직될수록 생명이 길어지나 潤을 소모할 수 있는 경락조직의 발달이 없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氣에는 저항력과 면역이 들어 있어 그 발생하는

곳에 따라 여러 가지 난치병을 고칠 수 있으며, 기는 潤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潤이 아무리 많아도 경락조직과 경락작용이 없으면 기를 일으키지 못한다.

(1) 經絡의 種類

가. 六元에 따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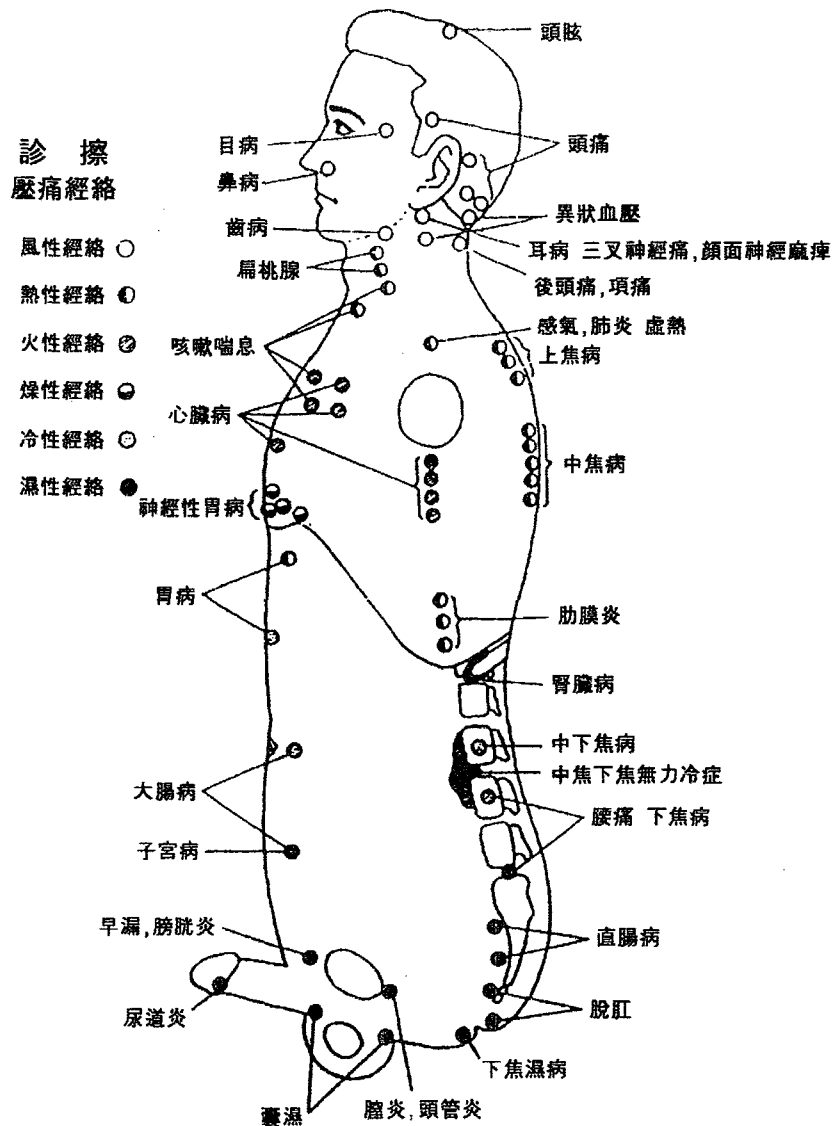
경락약침에서는 경락의 종류를 風, 寒, 暑, 濕, 燥, 火에 따라 風性經絡, 冷性經絡, 熱性經絡, 濕性經絡, 燥性經絡, 火性經絡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락은 기존의 경락과는 다른 개념으로 經外奇穴, 阿是穴, 또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방아쇠점과 유사한 면이 있다.

가) 風性經絡

頭眼部에 생겨나는 각종 질환을 風이라 할수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經絡을 風性經絡이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風池는 작용이 제일 강하고 넓으며, 그다음으로 제 2 차 저항경락은 腦空, 完骨, 風府, 上天柱, 翳風, 翳風下 등이다.

나) 冷性經絡

冷性經絡은 腰椎體前方에 붙어있는 군살이나 중요한 저항을 일으키는 經絡이며, 冷體質에 있어서는 체질적인 主抵抗經絡이다. 人體經絡中에 가장 裏部に 속하며 가장 크고 작용범위가 넓다. 제 3, 제 4 요추체 전방에서 가장 높은 고지를 가지고 있으며 陰交, 氣海에서 축지가 용이하다. 밑으로는 石門, 大巨, 옆으로는 天樞, 위로는 中腕까지 크게 발달



< 경 락 도 >

한다. 이 經絡은 순전히 骨性經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冷性經絡은 비만을 예방하며 피부를 튼튼히 하고 얇게하며 筋肉을 實하게 한다. 주로 中下焦臟腑의 生理病理를 맡고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消化器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 熱性經絡

또한 熱이란 대부분의 질환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동통과 같이 역시 經絡이 일으키는 작용이다. 내부의 부산물을 땀 구멍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체표를 이완시키는데 쓰이는 것이 熱이다. 즉 체내의 병적인 부산물 중 땀으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熱을 의

지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특히 經絡이 직접 관계할 때에는 高熱이 발생한다. 주로 호흡기 질환에서 많으며 肺俞, 肝俞, 肩井, 人迎, 水突 등이 주요 경혈이다.

라) 火性經絡

火란 심장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열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火란 熱이 뭉쳐 發散이 안되고 뭉쳐져 있는 것이다. 인체 내부에서 열이 오래 뭉쳐 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心臟이다. 따라서 心火는 심장의 熱證을 말한다. 심장에 국한된부위로 氣戶, 庫房, 彘中, 神臟, 肩井, 膏肓, 心俞 등을 들 수가 있다.

마) 燥性經絡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에서 일어나는 熱證이 火라면, 火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지나치게 많은 熱證을 燥라고 한다. 燥는 피부의 潤을 가장 잘 소모시키는 병증이다. 일생을 통하여 갱년기가 그 시기에 해당하는데 燥는 갱년기가 되면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燥의 생리적인 기능은 濕을 견제하여 비대를 막고, 신경기능의 항진을 막아 精神思考의 정상화와 內臟의 작용기능 항진도 조절케 된다.

흔히 갱년기무렵의 당뇨병이라는 燥性病症이 이것의 일종이다. 肥大人의 당뇨는 하체는 過濕하고 상체는 過燥하다. 燥는 糖尿를 비롯하여 원인불명의 미열, 피로감, 이상혈압, 뇌신경장애, 호흡기질환, 각종 장부신경장애, 뇌막질환, 간장질환, 생식기능저하 등의 潤虛諸般症狀과 過濕諸般症狀이 나타

난다.

燥性經絡은 보통 中庭兩方肋間上에 위치하며 上下로 길게 뻗어 있다. 燥性經絡의 발생은 前胸에 潤이 말랐을때 생기게 된다. 즉 憂鬱, 근심, 걱정, 悲哀 등에서나 혹은 흡연, 공해 등으로 발생한다.

바) 濕性經絡

인체에 濕이 끼어 대사가 안되는 경우는 그곳이 氣虛함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氣虛에 濕이 끼일 수도 있고, 濕이 滯하여 氣虛가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濕이 있는 곳에 潤虛는 좀체로 일어나지 않는다. 濕과 潤은 서로 비슷하지만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濕은 陰에 속하는 것으로 下焦臟腑의 下緣쪽일수록 그 분포가 광범위하다. 항문, 질, 음낭, 대장, 자궁 등은 보다 잘 濕에 의해 노출될 수 있다. 관계된 경혈은 長強, 大腸俞, 會陰 등이다.

나. 形態에 따른 種類

경락을 형태에 따라 구별하여 보면 냉성경락과 같이 척추의 전방부위에 붙은 骨性經絡, 府舍(하복부 질환이나 암에서 나타남), 極泉, 天牖와 같은 經絡에 생기는 淋巴性經絡, 근육 부위에 생기는 筋性經絡, 피부의 근처에서 발생하는 皮性經絡 등이 있다.

(2) 經絡藥鍼의 種類

藥針液의 종류는 人蔘, 黃耆, 酸棗仁, 川椒, 熊膽, 麝香, 牛黃 등에서 추출한 E, H, S, C, V, M, OK 등의 氣劑와 鹿茸, 들깨, 紅花, 胡桃, 當歸, 川芎 등에서 추출한 N, JD, HO, HN, I 등의 윤제

가 있다.

(3) 中風에의 應用

경락을 정확하게만 찾을 수가 있다면 그 경락을 조절해 줌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치료법으로 풍성경락이 주가 되고 다른 경락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용 되어지며 중풍전조증, 초 중기증, 후유증에 따라 다르게 치료한다. 또 응급한 상태나 먹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에도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여 줄 수 있다.

2) 八綱藥針療法

八剛약침은 국소적인 부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팔강변증을 기초로 하여 전체적인 조절 (三焦조절)을 목적으로 하며 배수혈 부위를 진단의 기준으로 하여 한의학의 五臟六腑를 연관시켜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한약을 운용하듯이 약침을 이용할 수 있다. 국소적으로도 다양한 한약제를 이용하여 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약침에 비하여 구하기 쉬운 한약재를 시술자가 필요로 하는데로 응용이 가능하며 약재의 대용이 가능한 잇점이 있다.

(1) 藥針의 治療部位

八剛藥鍼은 등의 背俞穴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먼저 三焦로 나누어서 上焦는 兩肺俞, 左心俞, 兩肩井으로, 中焦는 左脾俞, 胃俞, 右肝俞, 膽俞로, 下焦는 兩腎俞로 나누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즉 각 장부의 음양의 偏勝, 偏衰에 따라서 약침을 선택하여 놓아준다.

	左肩井(君火)	右肩井(少陽相火)
上焦	肺俞 心俞	肺俞
中焦	脾俞 胃俞	肝俞 膽俞
下焦	腎俞 左辜丸(腎陰)	腎俞 右辜丸(腎陽)

(2) 診斷의 方法

일단 환자를 엎드리게 해놓고 손을 양옆구리에 나란히 붙인다음에 고개를 들어 몸을 세우면, 이때에 등에 나타나는 상태에 따라서 각 장부의 허실을 판단하여 약침을 놓아준다.

예를 들면, 肝俞의 부위가 융기가 되어있으면 肝陽上亢을 쓰고, 함몰이 되어 있으면 肝氣鬱結을 쓴다던가, 脾俞의 부위가 융기되면 寒濕困脾를 쓴다던가, 心俞의 부위가 융기되면 心火藥을 쓴다던가 등등 五臟六腑의 상태를 八剛辨證에 의하여 치료할 수 있다. 이때, 왼쪽은 脾臟과 心臟이 있는 부위로써 心,脾의 熱로 인하여 왼쪽어깨에 열이 오를 수 있고, 오른쪽은 肝의 열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에 열이 오를 수 있다. 이외에도 요배부를 赤外線 體熱診斷器를 이용하여 정확히 진단하여 체열과 배수혈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3) 各 背俞穴별 治療,處方

다음은 주로 이용되는 혈자리며, 그 혈자리에 쓸 수 있는 처방명과 처방내용 그리고 적응증이다.

가. 肝俞, 魂門, 膽俞, 陽綱

肝血虛 (백작약 백하수오 여정실 산조인 숙지황 5, 아교 구기자2, 당귀 천궁1) 자율신경실조, 빈혈, 월경불순, 안질환

肝陽上亢 (별갑5 백작약 백하수오 여정실 단삼 익모초 산조인3 목단피0.5, 감국0.3) 두통, 항강, 불면증, 고혈압, 동맥경화, 자율신경실조

肝氣鬱結 (백작약 단삼 익모초5 여정실 백하수오 산조인 향부자3 시호2 천궁 울금 감초(炙)1 청피 0.5) 용기가 없을때

肝陽化風 (조구등 국화 석결명 별갑5 백작약 여정실 단삼 익모초 산조인 하고초3 목단피 치자 천마1 전갈(尾) 천련자0.5) 고혈압, 뇌혈관질환

熱極生風 (생지황 하고초 조구등 석결명 용담초5 국화 결명자 백작약 여정실3 목단피 치자 시호 울금2 영양각1 천련자0.5) 열성경련, 고열이 날때

血虛生風 (별갑 백작약 여정실5 산조인 백하수오 익모초 숙지황3 당귀 천궁1 천련자0.5) 빈혈, 만성 소모성질환, 뇌졸중

利膽藥 (인진 치자 울금 대황5 황금 포공영3 황백1) 利膽, 瀉肝火

나. 心俞, 神堂,

心氣虛 (당귀 산조인 백복신 계지2 백자인 인삼 원지 천궁 감초(炙)1) 신경쇠약,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

心陽虛 (육계 부자 인삼 백복신 산조인2 당귀 천궁 원지 백자인 감초(炙)1) 신경쇠약,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

心血虛 (단삼5 백자인 산조인 백복신3 백합2 숙지황 용안육 감초1 당귀0.5) 빈혈, 불면, 자율신경실조, 갑상선증, 부정맥 등

心陰虛 (단삼 백합5 백자인 백복신 산조인 연자육 3 목단피2 용안육 용골 감초1) ; 불면, 두통, 자율신경실조, 갑상선증, 삭맥

心火旺 (황연 황금 황백 치자5 연자육 백합1) 불면증, 고혈압, 정신분열신경증 등

다. 脾俞, 意舍, 胃俞, 胃倉

脾氣虛 (인삼 황기 산약3 백출 백복령 황정2 진피 대추 감초(炙)1) 위십이지장궤양, 만성장염, 이질, 간경변, 소화불량

脾陽虛 (인삼 산약3 백출 황기 건강2 진피 자감초1) 위십이지장궤양, 만성장염, 이질, 간경변, 소화불량

中氣下陷 (황기5 인삼 산약 황정 백출3 진피 대추 감초(炙)1) 위하수, 탈항, 자궁탈, 당뇨

寒濕困脾 (백출 백복령 창출 반하5 황기 진피 대추 감초(炙)1) 비만자, 소화불량, 만성장염, 이질, 간경변, 소화불량

胃虛寒 (인삼5 양강 건강 백출 후박2 황기 대추 계지 초두구 사인 감초(炙)1 목향0.5) 위십이지장궤양, 신경성위염, 위산과다

胃陰虛 (천화분 석곡5 맥문동 사삼3 감초1) 만성 위염, 위궤양

胃火 (석고 지모 황연5 석곡 천화분2 감초1) 위염, 신경성위염, 당뇨, 구내염

라. 肺俞, 魄戶, 肩井, 中府

肺氣虛 (황기2 오미자1 감초0.5) 호흡곤란, 자한, 음성무력, 감기

肺陰虛 (현삼 백합5 맥문동 천화분 사삼 패모 비파엽2) 기관지천식, 기관지염, 폐결핵, 편도선염

寒邪犯肺 (백계자 건강 소자3 길경 자완 관동화2 세신1) 감기, 인플루엔자, 알러지비염

熱邪犯肺 (황금 석고5 산두근 금은화 지모3 현삼 지골피2 천화분 길경1 감초0.5) 감기, 인플루엔자, 인후염, 기관지염

마. 腎俞, 志室

腎精不足 (숙지황 여정실 구관5 산수유 구기자3 토사자 육종용 복분자 감실 우슬2) 당뇨, 갑상선기능저하, 허약증, 노인성치매

腎陽虛 (숙지황 여정실4 산약 산수유 구기자2 복령 목단피 택사 녹용 육계 부자 우슬 두충1) 상초의 화를 하강

腎陰虛 (구관 숙지황 여정실5 산약 산수유 구기자 토사자2 복령 목단피 택사1) 수족장심번열, 만성적 체력소모

바. 四象體質別 處方(처방내용은 東醫壽世保元과 동일함)

少陰人 ;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香砂養胃湯, 十二味寬中湯, 香砂六君子湯, 星香正氣散등

太陰人 : 太陰調胃湯, 葛根解肌湯, 清心蓮子湯, 麻黃定喘湯, 清肺瀉肝湯, 熱多寒少湯, 補肺元湯등

少陽人 : 荊防敗毒散, 導赤降氣湯, 獨活地黃湯, 荊防地黃湯, 十二味地黃湯, 涼膈散火湯, 六味地黃湯등

太陽人 : 五加皮壯脊湯, 미후藤植腸湯

사. 기타

左肩井 (갈근5 황연 황금 황백 치자2) 심화로 인한 견정용기, 두통, 견통

右肩井 (갈근5 황연 황금 황백 치자2) 간화로 인한 견정용기, 두통, 견통

蓄膿症 (어성초 만형자3 연교 금은화2 신이 황금 박하 백지 창이자 감초1) 축농증

頭痛 (만형자 조구등 백강잠5 감국 적작약 치자3 천마 황연 황금 황백1) 두통

溫性瘀血 (현호색5 유향 몰약2 당귀(尾)1) 상처 부위가 찬 경우

中性瘀血 (치자5 현호색 유향 몰약2 도인 적작약 단삼1.5 소목1) 간화, 심화가 있으며 종창이 있는 타박상,

涼性瘀血 (치자5 적작약 택란2 황연 황금 황백1) 어혈과 열이 심한 경우

風寒濕脾 (속단 골쇄보 구척 위령선 오가피 당귀5 우슬 현호색 몰약 유향 홍화3 강활 독활 진교 육계 부자2 계지 천오1) 신경통

坐骨神經痛 (구척 골쇄보 해동피10 속단 강활 독활 진교 음양곽 방풍 계지5 우슬 두충 현호색 유향 몰약3) 좌골신경통, 요통

關元藥 (호로파 음양곽 육계 부자 파극 파고지 쇠

양 선모 녹용5) 하단전의 양기부족

下腹藥 (도인 적작약 목단피 계지 홍화5 우슬 익 모초 당귀(尾) 유향 몰약 현호색3 오약 육계 부자 녹용1) 무월경, 월경불순, 자궁질환

腹水藥 (저령 택사4 차전자2 견우자1) 양수, 음수
 消炎藥 (황연 황금 황백 치자3) 습진, 포진, 알러지성 피부질환

(4) 中風에의 應用

八綱藥針은 한약을 처방하듯이 각 장부에 따른 서로 다른 처방을 하여 줄 수 있다는 면이 있고 한약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어지는 관계로 약을 선택하는 범위가 넓어진다.

八綱藥針의 주된 효과는 背俞穴을 위주로 하여 치료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환자의 상태를 조절하여 준다는 면에서는 좋으나 환자를 엎드린 상태에서 치료를 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풍초기나 진행기에는 쓰는데 무리가 있으나 중풍 전조증이나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거나 후유증으로 넘어간 상태에는 효과적이다. 또 먹어서 흡수하기 힘든 한약 등도 약침액으로 만들어 쓴다면 치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3) 蜂藥針療法

蜂藥針은 민간인들에 의하여 벌을 이용한 약침방법의 하나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봉침액을 생산해 만성통증이나 류마치스 관절염에

쓰여지면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경락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통증부위나 척추부의 督脈經과 膀胱經, 皮판(dermatomes)등을 이용해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강한 진통작용과 소염작용을 하게 한다.

(1) 蜂藥針요법

蜂藥針은 수천년 동안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만성염증이나 만성통증에 이용되어 왔다. 신선하게 채출된 봉독액은 맑고 투명한 액체로써 강한 쓴 맛이나는 방향성 물질이다.

蜂藥針의 면역기능에 관한 내용을 보면, 소련의 고르키 의과대학의 생리학교실 주임교수인 Artemov교수가 1959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단 봉독이 주입되면 그들의 방어기전을 동원시켜서 재빨리 곤충석교독 (Envenomization) 을 극복한다. 즉 蜂藥針은 포유동물의 면역계에서 유기체의 생체계를 자극하고 다음에 생체의 방어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미국의 브라운 의과대학의 Bellevue 교수 연구팀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봉독을 동물의 암세포 치료에 적용한 결과 봉독 자체는 암세포나 정상세포에 직접적인 작용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했고 간접적으로 면역체계를 자극시켜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였다.

蜂藥針의 적응증은 근육통, 근염, 섬유근염, 근막장애통증증후군, 급성및 만성관절염, 신경통, 신경염, 편두통, 류마치스 관절염, 연조직과 골조직의 만성 외과적 염증, 피부병등을 들 수 있다.

(2) 中風에의 應用

다른 요법에 비하여 통증, 가려움증, 쇼크 등의 위험 부담이 높지만 혈압이 조절되고 안정된 상태라면 손발이 저리거나 지속적인 마비감, 지속적인 통증, 불면증 등이 다른 치료법에 비하여 효과적이고 중풍초기의 병의 변화속도가 빠를 때에는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외선 체열진단기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한다면 효과적이다.

4) 中國의 藥針療法

중국의 약침요법은 한약 단미제, 복합단미제를 穴位注射, 肌肉注射, 靜脈注射法을 이용하여 시술하고 있다.

(1) 中國藥針의 종류

혈위주사법은 약침액을 경혈자리에 주입하는 방법이며, 근육주사법은 약침액을 둔부의 근육에 놓는 방법이며, 정맥주사법은 葡萄糖이나 生理食鹽水등에 약침액을 섞은 다음에 정맥을 통하여 주입하는 방법이다.

약침액의 종류는 丹參注射液, 大蒜注射液, 天麻注射液, 地龍注射液, 當歸注射液, 復方當歸注射液, 鹿茸注射液, 精制蜂毒注射液, 紅花注射液, 柴胡注射液, 清開靈注射液 등이 있다.

(2) 中風에의 應用

한국에서는 시술하는 방법이 穴位注射療法을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응용하여 시술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침을 시술하는듯한 단순한 혈위주사법 외에도, 肌肉注射, 靜脈注射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풍 초기의 환자에 있어서는 清開靈注射液(牛黃, 水牛角, 黃芩, 金銀花, 梔子 등, 北京中醫大學實驗藥廳)은 清熱解毒 鎮靜安神을 목적으로 혈위주사, 기육주사, 포도당또는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정맥주사를 한다.

또 中國 龍井시 中醫病院의 孫永錫 中醫師는 高血壓의 치료에 관한 글(제1회 국제사상의학학술대회)에서 太陰人은 천마주사액, 사향주사액, 우황성뇌주사액을 이용하고, 少陰人은 부방단삼주사액, 인삼주사액을 이용하고, 少陽人은 고목주사액, 하무무주사액, 청개령주사액, 쌍황연주사액, 시호주사액을 쓴다고 하였다.

2. 藥針治療의 診斷法

藥針治療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중풍의 전조증이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赤外線 體熱診斷을 이용하여 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후유증이 심하게 남은 경우에는 어느 부위의 순환이 안 되는지를 진단하여 치료한다면 효과적이고 또한 병의 호전된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赤外線 體熱診斷은 피부 표면의 방사 온도를 적외선을 이용해 컴퓨터로 자동 분석하여 신체

의 미세한 기능적 이상을 찾아내는 것으로 병의 진행정도를 정확히 진단해 낼 수 있다.

3. 中風에 있어서의 藥針療法

經絡藥針療法으로는 頸椎 1,2,3번 부위, 風池, 肩井, 목의 경결부가 주가 되고, 人中, 承漿, 廉泉, 足三里, 手三里, 曲池, 合谷, 陽陵泉, 陰陵泉, 太衝, 懸鍾, 風市 등의 중풍과 관련된 혈자리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에 따라서 놓게 된다. 마르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는 潤劑를 쓰고 비만한 환자는 氣劑를 위주하여 쓰거나 증세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潤劑와 氣劑를 번갈아 가면서 균형을 맞추어 주며 경락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八綱藥針은 兩肩井에는 左肩井, 右肩井을, 兩肺俞, 魄戶에는 肺氣虛, 肺陰虛 등을, 左心俞, 神堂에는 心氣虛, 心陽虛, 心血虛, 心陰虛, 心火旺 등을, 右肝俞, 魂門, 右膽俞, 陽綱에는 肝血虛, 肝陽上亢, 肝氣鬱結, 肝陽化風, 熱極生風, 血虛生風, 利膽藥 등을, 左脾俞, 意舍, 左胃俞, 胃倉에는 脾氣虛, 脾陽虛, 中氣下陷, 寒濕困脾, 胃虛寒, 胃陰虛, 胃火 등을, 兩腎俞, 志室에는 腎精不足, 腎陽虛, 腎陰虛, 八味, 六味 등을 背俞穴에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주가 되고 외에 胸腹部나 頭部, 四肢部에 있어서는 風痺, 寒痺, 濕痺, 風寒濕痺, 頭痛, 消炎, 瘀血약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약을 쓸 수 있다.

蜂藥針은 혈압이 조절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주의

하여 써야하는 관계로 중풍의 급성기, 초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기가 힘들지만 전조증이나 後遺症에 있어서는 통증과 가려움증 등의 여러 증세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빠르고 면역작용에 의한 효과가 있으므로 잘 안 낫는 경우에 시도해 볼 만 하다.

위의 모든 약침의 종류는 經絡, 背俞穴, 척추의 督脈經과 膀胱經, 阿是穴등의 원래 쓰는 방법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의사의 주관에 따라서 五行鍼, 體質鍼, 太極鍼, 다른 특수 침법을 쓰는 부위에 經絡藥針, 八綱藥針, 蜂藥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팔강약침의 경우는 의사의 의도에 따라서 애용하는 처방을 약침액으로 활용해 볼 수 있고 또한 사상처방을 약침액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1) 中風前兆症의 藥針療法

목이 뻣뻣하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때에 風池, 肩井, 百會, 경추부위에 경락약침은 V, OK, HO, I, HN 등을 쓰고, 팔강약침은 배수혈에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치료하며, 左右肩井, 導赤降氣湯, 葛根解肌湯 등을 쓸 수 있고, 경락, 팔강약침으로 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에 정확한 알러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봉약침을 써 볼 수 있다. 눈 주위나 입 주위가 쉼룩거릴 경우에는 경락약침은 기제를 위주로 쓰고 팔강약침은 배수혈을 삼초조절을 하여 주고 風痺, 寒痺, 濕痺, 風寒濕痺 등의 약을 쓸 수 있으며 경락, 팔강약침으로 안 되는 경우에 조심스

럽게 봉약침을 시술할 필요가 있다.

팔,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감이 있는 경우는 足三里, 手三里, 曲池, 合谷, 陽陵泉, 陰陵泉, 太衝, 懸鍾, 風市 등의 혈자리에 경락약침은 V, OK, HO, I, HN 등을 경락을 찾아서 쓸 수 있고, 팔강약침은 먼저 삼초조절을 하여 주고 風痺, 寒痺, 濕痺, 風寒濕痺 등을 써 줄 수 있으며,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봉약침을 써 볼 수 있다.

2) 應急時의 藥針療法

환자의 상태가 응급한 경우에는 응급처치와 혈압, 당뇨에 관한 처치를 한 다음에 경락약침은 風池, 肩井, 百會, 中風七處穴 등에 V, OK, HO, I, HN 등의 약침을 이용하여 긴장하거나 열이 오르는 것을 내리게하고 숨이 차거나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에 M, I 등을 이용하여 도와줄 수 있다.

팔강약침은 좌우견정약과 배수혈에 삼초조절을 하여 열이 오르거나 긴장된 것을 안정시켜 준다.

봉약침은 발열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좋으며 만일 쓸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中風初期, 中期時의 藥針療法

대부분의 증세는 中風前兆症의 증세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팔, 다리의 마비나 강직, 語鈍증세를 최대한 빨리 치료하여 후유증이 최소한으로 남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시기가 가장 치료 효과도 좋은 때이기도 하다.

치료법도 대부분은 중풍 전조증의 치료법과 비슷하지만 전반적인 증세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환자의 감정도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경락약침의 경우 열이 많이 오르는 경우는 V 나 OK 의 기체를 쓰고 숨이 차는 경우는 M 이나 I 를 응용할 수 있고 사지의 마비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한 경락을 찾아서 潤劑, 氣劑를 쓸 수 있다.

八綱藥針으로는 병의 원인에 따라서 肝, 心, 脾, 肺, 腎의 偏勝, 偏衰를 조절하는 삼초조절과 함께 팔, 다리 부분에 風痺, 寒痺, 濕痺, 風寒濕痺약을 써서 치료할 수 있다.

蜂藥針은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의를 요하여 위의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 치료할 수 있다.

4) 中風 後遺症의 藥針療法

어느정도 위험한 증세가 다 지나가고 3개월이 넘으면 증세의 호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치료속도가 뚜렷 떨어지며 그 이후의 증세는 후유증으로 볼 수 있으며 증세의 호전이 아주 힘들다. 즉 팔, 다리의 강직이 와서 굳어 있다던가, 언어의 어둔함이 남아서 안 없어진다던가, 지속적인 통증이 온다던가, 저린증상이 안 없어지는 후유증이 남는다.

經絡藥針은 전조증, 초기, 중기에서와 같이 따라 윤제와 기체를 선택하여 정확한 경혈점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八綱藥針도 전조증, 초기, 중기에서와 같이 환자에 따라 삼초조절을 하는 것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증세에 따라 시술 할 수 있다.

蜂藥針은 여러가지 치료법 후에도 후유증이 심하며 다른 치료법이 잘 안되는 경우에 강한 자극요법으로 혈압, 당뇨,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의하여 치료한다면 다른 치료법보다 지속적인 통증과 저린 증상에 효과적이다.

III. 結 論

中風은 洋醫學적으로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韓醫學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이 연구되고 임상경험도 풍부한 분야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의학의 약침요법을 응용한다면 기존의 韓藥을 內服하는 방법과 針을 놓는 방법외의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응급한 환자인 경우에 입으로 먹지 못한다던가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치료가 잘 안되어 後遺症으로 마비감, 강직증, 語鈍, 지속적 통증, 보행곤란등으로 남았을 경우에 한약과 침 외의 또다른 호

과를 높일 수 있다.

각 분야의 전공에 따라서 한약침액을 개발하여 응용을 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의학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여러가지 난치병, 암, AIDS등에도 도전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金文昊 : 병독요법과 병침요법 서울 한국교육기획 1979
2. 金廷彦 : 奇蹟의 藥針療法 서울 금강출판사 1987
3. 金廷彦 : 奇蹟의 藥針療法 II 서울 금강출판사 1990
4. 南相千 황재욱 : 藥針學 서울 大韓藥針學會 1994
5. 林鍾國 : 침구치료학 서울 집문당 1983
6.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85
7. 孫永錫 : 고혈압병-사상의학 치료경험 사상의학회지 Vol.6, No.1. 1994
8. 曹春林 施順清 主編: 中藥制劑注解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9. 錢百炎 顧茂瑜 王成榮編著: 中草藥注射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